

EYA NEWSLETTER

ENGLISH TITLES

FICTION

제목 : THE HEALER

가제 : 치유하는 소녀

저자 : Donna Freitas

출판사: HarperTeen

발행일: 2018년 10월 9일

분량 : 400 페이지

장르 : 영미소설일반



★ “스스로를 치유하는 의사의 이야기를 하고 싶다면, 현실을 벗어나 스스로를 구제하려는 한 청소년을 그린 이 소설이 가장 근사한 결과물일 것이다.” – 『위키드』의 작가, 그레고리 맥과이어

말레나 올리베이라가 엄마와 살고 있는 동네에는 가게마다 말레나의 모습이 전시되어 있다. 사진으로, 혹은 그림으로 그녀의 모습이 담긴 티셔츠며 머그컵, 각종 기념품들이 진열되어 있다. 말레나가 사람들이 모인 곳에 모습을 나타내면,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약속한 듯이 다들 양쪽으로 흩어져 길을 띄워준다. 말레나는 아직 스무 살도 채 안된 어린 소녀지만 누구도 감히 가까이 다가오거나 함부로 말을 걸지 못한다. 사람들에게 말레나는 ‘살아 있는 성인’, 신이 주신 신비한 능력을 가진 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다.

열여덟, 평범하게 살았다면 이제 대학에 입학해야 할 나이지만 살면서 한 번도 학교 비슷한 곳에도 가본 적이 없고 친구조차 단 한 명도 사귄 적 없는 말레나는 태어나 처음으로 변화를 꿈꾼다. 바라는 것은 단 한 가지, 그냥 평범하게, 같은 또래 아이들처럼 사는 것이다. 다른 사람을 부러워한 적도 없고 스스로 선택하지도 않았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특별한 능력을 한탄해본 적도 없는 말레나가 모든 걸 버리고 싶어진 것은 3개월 전, 핀을 만나면서부터였다. 뇌과학자인 앤젤라 교수의 제자이자 조수로 함께 자신을 만나러 온 핀을 보는 순간, 말레나는 사람들이 너도나도 길을 비켜주는 대신 아무렇지 않게 함께 앉아 식사를 하고, 더운 여름이면 수영복을 입고 바다에서 수영을 하고, 연애를 하면서 서로를 쓰다듬고 가만히 안겨보기도 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하지만 그러기에는 넘어야 할 산도, 말레나를 주시하고 있는 눈들도 너무나 많았다. 그 중에서도 가장 험난하고 가장 무서운 산은 바로 엄마였다.

말레나가 병든 사람을 낫게 하고 고통에 빠진 자들을 구원하는 치유자라는 사실은 태어난 지 며칠 만에 드러났다. 엄마가 말레나를 임신 중일 때, 아빠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를 태운 자동차가

큰 사고를 당하면서 모두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다. 한 집에서 더없이 행복하게 살던 가족들을 하루 아침에 몽땅 잃어버린 엄마는 감당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아 쓰러지고 말았다. 병원에 실려갔을 때 이미 가망이 없다고 판단한 의사들은 서둘러 뱃속에 있던 말레나를 꺼내어냈고, 엄마가 눈을 감기 전 잠깐이라도 아기의 따스한 체온을 느끼게끔 의식 없는 엄마의 가슴팍에 말레나를 가만히 올려두었다. 그러자 엄마는 사그라지던 맥박이 다시 뛰고, 창백했던 얼굴에 핏기가 돌기 시작했다. 내내 그 곁을 지키던 간호사는 정확한 과정은 알 수 없지만 분명 아기가 영향을 주었다고 확신했다.

엄마는 어린 딸이 목숨을 살려줬다는 간호사의 말을 반신반의했지만, 죽은 줄 알았던 엄마를 만나러 온 동네 사람들을 통해 계속해서 아기의 신기한 치유 능력이 입증됐다. 크고 작은 병을 앓던 사람들이 꿈지락 대는 작은 말레나를 안고 나면 거짓말처럼 고통에서 벗어난 것이다. 엄마는 말레나 덕에 다시 태어났다. 가족 모두를 잃은 엄청난 아픔도 말레나 덕분에 잊을 수 있었다. 입 소문이 퍼지면서 세계 각지에서 말레나를 보기 위해 사람들이 몰려 들었고, 일종의 사원을 마련하고 오두막 대신 거대한 저택으로 이사를 간 엄마와 점점 늘어난 수행원들의 도움을 받으며 말레나는 매주 토요일이면 기적을 행하는 의식을 열었다. 어떤 순서로 누구의 병을 낫게 할 것인지는 엄마가 정했고, 말레나는 정해진 사람에게 다가가 스스로도 놀라운 치유의 힘을 발휘했다. 상대가 노인이든 어린 아기든, 남자든 여자든, 언어가 통하든 그렇지 않든 눈을 들여다보고 가만히 피부가 닿으면 어느 순간 고통이 말레나에게 전해지고, 때로는 형형색색 알 수 없는 색깔이 번지는 그림처럼, 때로는 갖가지 장면이 사진처럼 펼쳐지는 이미지를 쫓다 보면 어느새 모든 고통이 없어졌다. 더 이상 서 있을 힘이 없을 정도로 기운이 소진될 때까지, 말레나는 그렇게 사람들을 아픔에서 해방시키며 평생을 살아왔다.

살아 숨쉬는 성인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세계 곳곳에 퍼지면서 말레나의 능력을 의심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과학적으로 분석하려는 사람들도 나타났다. 불행했던 엄마의 삶을 구한 것에 만족하며 주어진 능력이라면 사람들에게 나눠야 한다고 믿었던 말레나는 자신을 세상과 철저히 단절시킨 채 이상적인 ‘이미지’를 유지하도록 점점 과도하게 억압하는 엄마의 다그침에 반발심을 느끼기 시작한다. 순수한 의도가 아닌,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갖기 위해 자신의 능력을 마음대로 휘두르려는 엄마의 어두운 욕망이 생각보다 훨씬 더 깊다는 사실과 맞닥뜨린 그 때, 태어나 처음으로 마음을 뒤흔든 편까지 나타나면서 말레나는 큰 혼란을 겪는다. 남들이 갖지 못한 능력을 가졌다고 해서, 자신의 행복까지 다 희생해야 하는 걸까? 남들의 행복을 위해 스스로는 지옥 같은 불행도 견뎌야 할까? 잃고 싶진 않지만, 족쇄가 되지도 말아야 할 치유 능력은 축복일까 저주일까? 사랑과 상실, 배신, 믿음의 의미를 독특한 소재로 풀어가는 흥미롭고 매력적인 소설이다.

<저자 소개>

돈나 프레이타스(Donna Freitas)는 이스라엘, 네덜란드, 터키에서도 출간된 『Unplugged』 시리즈를 비롯해 여러 편의 소설과 논픽션을 쓴 작가다. 「월 스트리트 저널」, 「뉴욕 타임스」, 「보스턴 글로브」, 「워싱턴 포스트」 등 여러 신문과 잡지에 글을 기고하고 미국 전역 100여 곳의 대학에서 강의를 해 왔다.

제목 : THE TERMINAL LIST

가제 : 당신들의 최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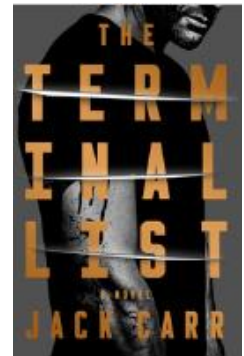
저자 : Jack Carr

출판사: Atria/Emily Bestler Books

발행일: 2018년 3월 6일

분량 : 416 페이지

장르 : 액션/스릴러소설



* 이탈리아 판권 계약(pre-empt)

* “두 가지 사건, 두 배의 액션으로 재미는 네 배인 소설” -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1위작, 『The Lost Order』의 작가 스티브 베리

* “저격수의 총에서 발사된 총알처럼 목표물에 파괴적인 영향을 일으키는 이야기. 내려 놓을 수가 없었던 책” -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NO EASY DAY』의 작가 마크 오웬

아프가니스탄 후스트 지역, 새벽 2시에 제임스 리스 소령은 매복 공격 조짐이 확인됐다는 장소에 숨어 있었다. 그를 믿고 따르는 해군 특수부대 소속 장병 서른여섯 명과 지역 경비대원 스물여덟 명이 곳곳에 배치되어 헤드셋으로 오가는 무선 신호를 대기하고 있었다. 고요한 새벽 공기 속에서, 수상한 움직임을 포착하기 위해 모든 신경이 곤두선 탓인지 리스의 머릿속엔 자꾸 이상한 생각들이 떠올랐다. 아프가니스탄을 비롯해 10여 년을 전장에서 보낸 그는 윗선에서 여러 경로로 수집한 정보와 단서를 토대로 이런 불시 작전을 충분히 지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이번 작전은 지시가 전달될 때부터 준비할 때까지 어딘가 미심쩍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 왜 구체적인 작전 내용까지 위에서 일일이 알려줬을까? 구성원과 배치 방식까지? 몇 달 전부터 시달린 두통 때문에 과민해진 것일 수도 있다고 다시 현장 상황에 집중하던 리스는 나중이야, 그 때의 직감이 얼마나 정확했는지 깨닫는다. 그 날 새벽, 제임스 리스의 부대원 전체가 목숨을 잃었다. 긴급 구조 요청을 받고 출동한 비행 부대원 넷까지 총 예순여덟 명의 목숨을 단번에 앗아간 건 미리 예고된 매복 공격이 아니라, 주변 전체를 날려버린 폭발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 폭발의 진짜 이유는 나중이야 리스의 눈 앞에 모습을 드러낸다.

군인으로 사는 것을 소명으로 여기고 원칙과 질서를 절대 어기는 법 없이 묵묵히 고된 전장도 마다하지 않던 리스에게 가족이나 다름없던 장병들의 죽음은 견디기 힘든 상처를 남겼다. 그를 지금까지 버티게 한 건 누군가는 반드시 나서야 할 전투에서 자신이 이끄는 청년들은 단 한 사람도 다치거나 목숨을 잃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리라는 굳은 다짐이었는데, 하루아침에 70명에 달하는 부대원들이 죽고 만 것이다. 그런데 엄청난 실의에 빠진 리스에게 또 한 가지 놀라운 소식이 전해진다. 두통에 시달리다 못해 받아본 정밀 검사 결과에서, 뇌종양이 발견된 것이다. 이번 전투는 군 생활을 마감하고 사랑하는 아내, 딸과 평범하게 살기 전에 마지막 배치된 임무였는데 동료

들을 잃고 시한부 환자가 되어 고향에 돌아가게 된 그에게 의사는 한 가지 희한한 사실을 알려준다. 리스의 머리에서 발견된 종양이 함께 복무하던 다른 병사의 뇌에서 똑같이 발견됐다는 것인데, 두 사람의 뇌 상태가 마치 복사한 것처럼 너무 똑같다는 것이다. 게다가 종양의 종류는 전체 뇌종양 환자를 통틀어 채 2 퍼센트도 안 될 만큼 아주 희귀한 종류라, 이렇게 나란히 같은 병에 걸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매복 작전이 시작될 때부터 불안했던 리스의 직감이 어쩌면 아주 정확한 신호였을지 모른다.

그러나 비극의 실체는 이미 절망에 빠진 리스에게 가장 잔인한 형태로 그 모습을 드러냈다. 이제 세 살이 된 딸 루시와 너무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던 사랑하는 아내 로렌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아프가니스탄에서 겪은 고통을 겨우 억누르고 달려간 캘리포니아의 집에서 두 사람이 싸늘한 시체로 발견됐다. 집 마당에 차를 대자마자 현관으로 달려가려는 그를 경찰이 붙들고 저지하고 온 동네 사람들이 나와 있는 상황을 리스는 전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가장 돌아오고 싶었던 집이 살인사건 현장이 됐다는 사실은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무장 괴한 여럿이 현관에서부터 무작위로 총을 쏘아대며 침입했고 로렌은 루시를 안은 채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었다. 한 가닥 붙들 희망까지 모조리 사라진 리스는 혼미해지는 정신을 붙들고 대체 왜 이런 일들이 한꺼번에 벌어졌는지, 따져보기 시작한다. 그리고 마침내, 평생을 목숨 걸고 지켜온 조국이 자신을 배신한 것으로 모자라 참혹한 희생을 강제로 요구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정치인, 경제계 거물들, 돈만 아는 파렴치한들이 벌인 거대한 음모가 타국에서 나라를 지키려던 젊은 청년들과 무고한 가족을 없앤 장본인임을 알아낸 리스는 얼마 남지 않은 생애를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것에 바치기로 결심한다. 치열한 전투 현장에서 갈고 닦은 기술을 총동원하여 상대를 잘못 골랐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려주리라 마음 먹은 리스는 탐욕에 물든 음모의 주인공들을 하나하나 색출하여 명단을 만든다. 시한부가 된 전직 군인의 ‘시한부 리스트’는 그렇게 탄생했다. 그리고 3개월 뒤, 와이오밍에서 리스의 첫 번째 복수가 시작됐다.

주인공 제임스 리스처럼 해군 특수부대 SEAL 출신인 작가가 변호사이자 정부 업무에 정통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완성한 이 소설은 내부에 직접 몸담고 겪은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군인의 삶과 위험천만한 전투 상황이 생생하게 담겨 있다. 스릴 넘치는 액션과 부패한 권력에서 시작된 지저분한 음모를 파헤치는 스토리가 압권인 흥미진진한 소설이다.

<저자 소개>

잭 카(Jack Carr)는 조지 피터슨(George Petersen)과 키스 우드(Keith Wood) 두 작가로 구성된 팀의 필명이다. 조지 피터슨은 실제 해군 특수부대 SEAL 출신으로, 2017년 7월 은퇴할 때까지 20년간 해군 특수전 임무에 참여했다. 키스 우드는 변호사이자 정책 전문가로 주 정부에서 글로벌 생명과학 파트너십 체결을 총괄하는 일을 맡고 있다.

제목 : THE WOMAN LEFT BEHIND

가제 : 두고 온 전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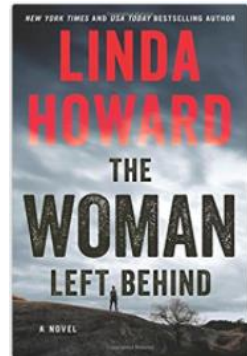
저자 : Linda Howard

출판사: William Morrow

발행일: 2018년 3월 6일

분량 : 368 페이지

장르 : 스릴러소설



* 초판 10만부 인쇄 / 독일, 스페인, 일본, 영국 판권 계약

* “특수한 상황에서도 따뜻한 인물들을 세심하게 그린 로맨틱 스릴러” – 「퍼블리셔스 위클리」

* “중독성 강한 이 신작 서스펜스 소설에서, 아드레날린 가득한 액션과 뜨거운 열정이 결합된 이야기의 거부할 수 없는 힘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 「북리스트」

겨울엔 따뜻하고 여름엔 시원한 사무실에 앉아 저 멀리, 혹독한 추위와 이글대는 태양 아래에서 중대한 작전을 수행 중인 이들을 지원하는 일에 뛰어든 지나는 적성과 흥미에 딱 맞는 직업을 찾았다고 확신했다. 곳곳에 숨어서 활동하는 테러리스트를 찾아내서 없애는 특수 대원들에게 적의 위치와 움직임 등 꼭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지나가 속한 통신부서의 주 임무였다. 준 군사기관에 해당되는 기밀 안보 기관 소속인 만큼 가족들도, 친구들도 지나가 정확히 어디서 무슨 일을 하는 지조차 알지 못했지만 지나는 누가 알아주는 일보다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를 마음껏 즐겼다. 하지만 그 적성과 소질을 너무 드러낸 것이 인생을 스스로 꼬이게 한 덫이 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어쩌다 꼬여버린 지나의 삶은 편안한 사무실 대신 먼지 폴폴 날리는 현장으로 내몰고, 정신 차렸을 땐 이미 팔자에도 없는 뽀박질에 수영에 근육이 다 터져버릴 것만 같은 체력 훈련에 시달린다. 콜 사인 ‘에이스’, 지나의 팀이 지원해온 현장 팀들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미션만 서슴없이 처리해온 팀의 리더 리비는 컴퓨터 천재인지는 몰라도 달리기조차 제대로 못하는 불청객, 신입 팀원 지나를 반드시 ‘전사’로 만들고 말리라 다짐하고, 두 사람의 만남은 처음부터 빠격댄다. 「뉴욕타임스」, 「USA 투데이」 베스트셀러를 다수 발표한 작가는 이 신작 소설에서 지나와 리비의 불꽃 튀는 신경전과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서서히 피어나는 스릴 가득한 로맨스로 또 한번 독자들의 마음을 사로 잡는다.

모든 건 회사 휴게실에 갑자기 나타난 전투 게임기에서부터 시작됐다. 남자 형제들과 부대끼며 자란 지나는 힘 세고 승부욕만 넘쳐 흐르는 사내아이들에게 한 방 먹이고 단번에 누르는 노하우를 일찍부터 터득했다. 컴퓨터 게임도 마찬가지여서, 지나는 등장 직후부터 직원들의 휴식시간을 잡아먹은 그 게임기를 두고 ‘여자들은 저런 거 못하지’라고 호언장담하는 남자 동료들에게 본 때를 보여 주려다가 내내 1등을 고수했는데 알고 보니 그건 회사가 몰래 실시한 테스트였다. 어쨌든 기존에 해본 어떤 게임보다 실감나고 정교하다 했더니, ‘공간 인식과 실행 능력’이라는 거창한 기술 부문에

서 단연 독보적인 자리에 오른 지나는 총성과 폭발, 잠입 같은 무시무시한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현장에서 드론을 이용한 정보수집과 분석을 담당할 책임자로 뽑히고 맡았다. 이런저런 항변에도 ‘싫으면 사표 써라’는 대답만 되돌아오자, 지나의 실직자가 되느니 땀 흘리는 편이 낫겠다고 애써 위로하며 신발끈 질끈 묶고 현장으로 향한다.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건 보기만 해도 겁이 나는 우락부락한 일곱 명의 특수 대원과 ‘베이비’라는 부당한 콜 사인이었다.

리비의 팀은 누가 봐도 지나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기색이 뚜렷했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였다. 리비에게 지나의 어떤 면이 하나 남은 동아줄이 될 수 있는 존재였기 때문이다. 에이스라는 호칭답게 어떤 어려운 미션도 완수해온 팀원들에게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다.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팀이고 어떤 군대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었다. 미국은 물론 해외 어느 정부도 승인하지 않은 까다로운 작전을 수행하려면 흔적도 남기지 않고 움직여야 하는 업무의 특성상 불가피한 일이었지만, 그로 인해 꼭 필요한 정보를 안전하게 제공 받기가 힘들었다. 드론으로 적진의 가장 깊은 곳까지 침투해서 동향을 파악하는 기술이야말로 이들이 돌연 길에 나뉘는 시체로 발견되지 않기 위해 꼭 필요한 오아시스였다. 리비를 비롯한 팀원들이 무슨 일이 있어도 지나가 흑독한 전투 현장에서 버틸 수 있도록 체력도 정신도 군인처럼 단련시키기로 마음 먹은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었다.

할 말을 전부 쏟아부어야 직성에 풀리고 아무리 힘들어도 절대 기가 꺾이는 법이 없는 지나의 처음 현장 팀에 합류했을 때만 해도 일주일도 못 버틸 악골로 보이더니, 시간이 갈수록 빠르게 적응하면서 처음부터 깔보던 팀원들을 놀라게 한다. 특히 자신이 맡은 일은 한 치의 실수도 없이 완벽하게 해내며 리비의 팀에 가장 부족했던 부분을 채우며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자리를 잡기 시작한다. 서로 으르렁대던 리비와 지나의 부딪힐수록 이상하게 끌리는 마음 때문에 곤혹스러워하지만, 중차대한 임무를 그르칠 수 있다는 부담감에 둘 다 그런 마음을 철저히 숨긴다. 아슬아슬한 감정 속에서 지나까지 완전한 팀원이 되어 세계 곳곳에서 위험한 작전을 수행하던 어느 날, 리비의 팀이 시리아에 있을 때 작전 팀 새로운 미션이 내려온다. 그것이 지나가 소속된 안보 기관에서 정보전을 총괄하는 악셀 맥나마라에게 깊은 원한을 가진 국회의원 조안 킹슬리가 오랫동안 계획한 치밀한 뒷이라는 사실을 알 리가 없었던 리비는 지시대로 팀원들을 이끌고 경찰에 나서고, 지나만 기지에 남아서 감시용 드론으로 지원하도록 결정한다. 그러나 악셀을 파멸시키는데 혈안이 된 조안의 지시로 기지가 폭격이 가해지고 지나의 허허벌판 사막으로 도망친다. 리비의 흑독한 훈련으로 기본적인 체력은 훨씬 좋아졌지만 곳곳에서 총부리를 겨누는 테러리스트들의 눈을 피하는 건 또 다른 문제였다. 한편, 자신이 책임지는 팀원, 특히 지나를 두고 어디든 갈 생각이 없는 리비는 살았는지 죽었는지 생사조차 알 수 없는 지나를 찾기 위해 먼 곳에서 그녀를 찾아 헤매기 시작한다. 두 사람의 재회는 1년을 숨긴 애끓는 마음을 드러내는 계기가 될 수 있을까? 액션과 러브스토리가 절묘하게 조합된 매력적인 소설이다.

<저자 소개>

린다 하워드(Linda Howard)는 등 로맨스 서스펜스 분야 베스트셀러를 다수 발표한 소설가다. 2005년에는 미국 로맨스작가 협회로부터 성과 우수상(Career Achievement Award)을 수상했다.

제목 : BETWEEN ME AND YOU

가제 : 나와 당신 사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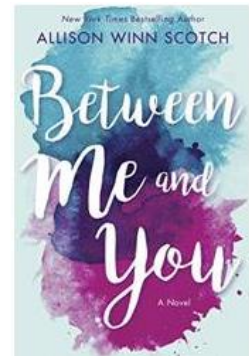
저자 : Allison Winn Scotch

출판사: Lake Union Publishing

발행일: 2018년 1월 9일

분량 : 364 페이지

장르 : 영미소설일반



- * US 위클리위와 할리우드 리포트에 출간 소식 소개, 팝슈거(POPSUGAR) 2017/18 겨울에 반드시 읽어야 할 도서로 선정
- * “두 사람을 갈라놓는 요소는 무엇인가, 갈라진 두 사람은 다시 함께 할 수 있을까 등 화려한 결혼 생활에 내포된 로맨틱함과 가슴 아픈 현실을 이야기하는 소설” - 베스트셀러 『The Seven Husbands of Evelyn Hugo』의 작가 테일러 젠킨스 레이드
- * “쉽게 와 달고 마음을 잡아 끄는 문장으로, 작가는 두 주인공이 그만 다 내려 놓아야 하는지 고민하는 과정을 때로는 장난스럽게, 때로는 현명하고 진중한 목소리로 들려준다.” - 「커커스 리뷰」

같은 자리에 함께 앉아서 본 영화나 드라마에도 우리는 제각기 다른 감상과 기억을 저장한다. 같은 일을 함께 겪어도, 사소한 부분부터 큰 줄기까지 보고 듣고 느낀 것들에는 차이가 있고 이것이 가족이든, 연인이든, 친구 사이에서 미묘한 갈등을 일으키는 틈이 되기도 한다. 17년 넘는 세월을 함께 한 부부, 테이텀 코넬리와 벤 리빙스턴은 분명 함께 느꼈던 서로를 향한 애정과 열정이 흐려진 채로 서로 너무 많이 엇갈려버린 길 끝에 서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그 틈이 쌓이고 두 사람이 멀어졌는지 생각한다. 대학원에서 할리우드 최고의 각본가가 되기를 꿈꾸던 벤과 맨해튼의 작은 바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연기자를 꿈꾸던 테이텀이 우연히 만나 결혼을 하고, 소망하던 일을 이루고, 무너지고, 아파하면서 소원해진 과정을 작가는 두 사람의 시선에서 따라간다. 각 장마다 번갈아 가며 등장하는 벤의 이야기는 2016년부터 조금씩 과거를 향하고 테이텀의 이야기는 둘이 처음 얼굴을 마주한 1999년부터 앞으로 나아가는 독특한 형식을 취하여 같은 일을 겪은 두 사람의 참 많이 다른 감상을 시간 차를 두고 살펴볼 수 있고, 이야기의 시점이 비슷한 곳을 향할 때 드러나는 뜻밖의 진실은 긴장감을 고조시킨다. 벤이 끊임없이 호소하는 후회와 비통한 심정이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지 되짚어 나가며 수수께끼처럼 하나씩 풀려 나오는 사고 혹은 사건의 전말은 테이텀이 꾸밈없이 열정 가득하던 무명 배우에서 여우주연상 후보에 오른 초대형 스타로 급부상하는 과정에서 겪은 일들과 얹히며 계속해서 호기심을 자아낸다.

벤의 이야기는 캘리포니아의 황량한 바닷가에 홀로 서서 결말을 가능할 수 없게 된 결혼생활을 탄식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오래 전부터 벤은 매년 같은 날, 그 바닷가를 찾아가 더 이상 이 세상 사람이 아닌 동생 레오를 떠올렸다. 학창시절, 같이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닐 때면 여학생들이 ‘전교에

서 가장 귀여운 애'라고 치켜세우던 매력 덩어리 동생은 험난한 세월을 끝내 이겨내지 못하고 그 바다에서 숨을 거두었다. 레오에 앞서 아버지도 그 바다에 뛰어들었다. 벤이 예닐곱 살밖에 안 된 어린 아이일 때부터 동생을 지키는 보호자가 되어야 한다고 엄하게 가르쳤던 아버지는 레오를 자신이 정한 방식대로, 자신이 정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도록 '설계'하려다 무참히 실패했다. 벤이 모건 스탠리 같은 곳에 취직할 생각은 손톱만큼도 없고 글을 쓰면서 살겠다는 사실을 털어놓았을 때 코웃음을 치며 호통치던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의 죽음을 소화시키지 못하고 약에 절어 서서히 파멸 하던 레오의 삶을 벤은 데이텀과 함께 지켜보고, 최선을 다해 동생을 다시 일으키려고 애썼다. 대학원 졸업 공연을 앞두고 데이텀과 처음 데이트를 시작할 때만 해도 성공은 가물거리는 불빛 정도에 불과했지만 곧 벤은 뛰어난 실력을 인정 받아 할리우드에서 유명 감독들이 러브콜을 보내는 작가로 화려한 위치에 올라섰다. 뒤에는 늘 어둡한 가정사가 그의 발목을 잡았지만 그는 독립 영화에서 시작해 선댄스 영화제의 단골 수상자로 자리매김한 각본가가 된 것이다. 데이텀과의 결혼 생활도, 둘의 첫 아이 조이를 키우는 일도 그렇게 탄탄대로를 달리는 듯 했다. 하지만 비극은, 그로 인한 내리막길은 생각보다 훨씬 더 일찍, 갑작스럽게 벤을 덮쳤다.

데이텀은 일하는 술집에서 혼자 맥주를 홀짝이던 벤을 처음 봤을 때만 해도 그냥 좀 귀여운 남자구나, 하는 정도가 전부였다. 친구 데이지와 함께 단역이라도 얻기 위해 애쓰던 시절이라 각본을 쓴다는 그의 소개에 관심이 확 기울여진 것도 사실이었지만, 둘은 한동안 말이 잘 통하는 친구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다 벤의 졸업 작품에 출연하기로 한 여배우가 갑자기 촬영을 못 하는 상황이 생기면서 데이텀이 그 빈자리를 채우고, 두 사람은 영화에 인생을 걸겠다는 공통 분모를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연인으로 발전한다. 마침내 결혼식을 올리고 결혼에 골인한 두 사람은 모든 고민을 함께 나누었고, 데이텀은 시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 혼란스러워하는 벤의 동생, 레오에게 누나이자 따뜻한 위로를 건네는 기동 역할을 톡톡히 했다. 그러나 레오는 끝내 버티지 못했고, 그의 죽음은 영화계에서 각본가로 명성을 날리던 벤을 수렁으로 끌어 당기는 늪이 되고 말았다. 벤이 펜조차 쥐지 못한 채 서서히 추락하는 사이 데이텀은 할리우드에서 대체 불가능한 신예 배우로 주목 받기 시작한다. 분명 함께 시작했지만 극명히 엇갈린 두 사람의 커리어와 각자의 가족에게 일어난 아픈 사건은 결국 둘 사이에 수습하기 힘든 상처를 남기고, 벤이 옛 고향 친구 아만다와 부적절한 관계를 시작하면서 부부의 관계는 악화일로로 치달는다. 작가는 두 사람이 한 몸처럼 가까워졌다가 남남처럼 멀어지는 과정을 각자의 시선에서 보여주며 사랑으로 견딜 수 있는 일과 사랑마저 파괴시키는 일들을 가만히 보여준다. 삶에 대한 깊은 통찰을 영리하게 담아낸 사랑과 상실에 관한 소설이다.

<저자 소개>

앨리슨 윈 스카치(Allison Winn Scotch)는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The Department of Lost and Found』, 『Time of My Life』, 『The One That I Want』와 2016년 「라이브러리 저널」 선정 최우수 도서 『In Twenty Years』 등을 쓴 소설가로 현재까지 발표한 작품들이 12개 언어로 번역됐다. 「인스타일」, 「맨스헬스」 등 여러 간행물에 글을 기고하는 프리랜서 작가로도 활동해 왔다.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에서 역사와 마케팅을 공부하고 수석으로 졸업했다.

추가 업데이트

제목 : A LADY'S GUIDE TO SELLING OUT

가제 : 문학을 광고하는 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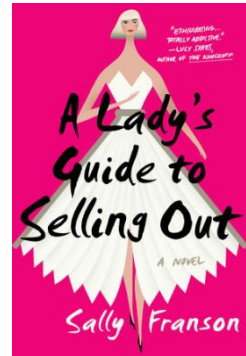
저자 : Sally Franson

출판사: The Dial Press

발행일: 2018년 4월 18일

분량 : 288 페이지

장르 : 영미소설일반



* 자신만만하고 유능한 광고계의 샛별,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한 여성의 솔직 담백한 성장기

* 광고와 예술의 만남, 돈으로 팔 수 있는 것과 그럴 수 없는 것, 기막힌 프로젝트가 가져온 혼란

대학에서 영문학을 공부하고, 졸업하자마자 광고 회사에 들어가 몇 년 만에 회사의 신임을 받는 인재로 떠오른 잘 나가던 여성이 꿈만 갖은 기회가 걸린 프로젝트에 뛰어든 후, 앞으로 쪽쪽 뻗어가기만 하던 인생 행로에서 처음으로 갈림길을 만난다. 벌어들인 수익이 성공의 지표인 광고 업계와 정반대에 서 있는 문학, 그 두 가지를 접목하려는 시도가 그 동안 잊고 있던, 혹은 여태 깨어난 적 없던 마음속의 무언가를 건드려 위험 신호를 울리기 시작한 것이다. 예술과 돈, 그 사이에서 피어난 갈등에는 ‘문학계의 아이돌’로 불리는 미남 작가와의 만남도 큰 몫을 한다. 북미 지역 판권으로 수익 달러가 제시된 이 흥미진진한 소설에서 극심한 심적 갈등을 통해 성장하는 주인공은 멜리사 뱅크스의 소설 『서툰 서른 살(A Girl's Guide to Hunting and Fishing)』의 주인공이나 『브리짓 존슨 다이어리』의 개성 넘치는 여주인공처럼 독자들에게 왓지 모를 친숙함과 함께 깊은 여운을 남긴다.

케이스는 ‘광고 인민 공화국’이라는 거창한 이름의 회사에서 입사 5년 만에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자리를 차지했다. 윗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존재, “참신함” 면에서는 다들 따라갈 수가 없다고 혀를 내두르며 재능을 타고 났다는 소리까지 수시로 듣는 케이스에게 회사는 참 많은 것을 이룬 곳이자 남다른 의미가 있는 곳이다. 다 큰 어른이 되어도 어딘가에 속해 있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없었는데, 희한하게도 회사에서 처음으로 소속감이라는 걸 느꼈으니까. 케이스가 속한 광고 부서는 딱딱한 서열도 없고 열린 공간에서 다 같이 일을 하고, 오후가 되면 전면 유리로 된 창가에 만들어진 휴게실 겸 바에 모여 와인 한잔을 나누며 직원들끼리 허물없이 대화를 나눈다. 직원들이 일터를 ‘집’처럼 느끼게 하려고 노력하는 회사의 바람처럼 케이스는 정말로 회사가 집과 다름 없는 곳으로 느껴졌다. 영문학을 공부한 케이스가 광고회사를 간다고 했을 때, 같은 과를 나온 동기이자 지금도 같은 집에 사는 제일 친한 친구 수잔은 깜짝 놀랐다. 작가로 성공해보려고 하루하루 전쟁을 치르며 궁핍하게 지내는 수잔은, 밤마다 자신과 페미니스트니 마르크시즘이니 하는 골치 아픈 주제를 이야기하며 지적인 고민에 빠지면서도 다음 날이면 오로지 상업성이 목표

인 광고를 만들러 출근하는 케이시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곤 한다. 하지만 케이시 역시 빠듯하게 살아야 하는 생활을 고집스레 이어가려는 친구를 이해할 수 없었다. 멋지고 화려한 삶,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 케이시에게는 그런 일들이 훨씬 더 중요했다. 회사에서 극비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까지만 해도 그랬다.

사건의 발단은, 케이시가 한 편도 놓치지 않고 챙겨보는 TV 리얼리티 쇼 <진짜 주부들>로 유명인사가 된 엘렌 행크스가 케이시의 회사에 일을 맡기면서 시작됐다. 엘렌은 엄청난 인기에 힘입어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만든 온갖 제품과 브랜드를 출시했는데, 단일한 브랜드로 깔끔하게 정돈하고 싶다고 했다. 저칼로리 보드카며 ‘단백질 너겟’, 보정 속옷 브랜드 ‘쉐입 업’까지, 우후죽순으로 시중에 나온 자신의 브랜드들을 한데 묶어서 사람들에게 통합된 이미지를 심어주고 싶다는 것이 엘렌이 바라는 것이었다. 케이시는 엘렌의 쇼를 보면서 그녀의 광 팬 내지는 골수 팬이 되었기에, 원래 유능한 실력을 더욱 발휘하여 그 어느 때보다 최선을 다했다. 그런데 케이시의 직속 상관인 셀레스테는 그 성과에 힘입어 세상을 놀라게 할 새로운 광고 프로젝트를 기획한다. 일명 ‘나유 프로젝트’라 이름 붙이고 극비로 진행된 이 프로젝트는 능력에 비해 제대로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홀대 받는 작가들과 브랜드를 알리고 싶지만 광고비가 부족해서 고민인 업체들을 연결시켜서 양쪽 모두에게 좋은 일을 한다는 내용이었다. 작가는 자신의 실력을 세상에 널리 알릴 기회를 얻고, 업체들은 거액의 광고료를 들이지 않고 브랜드를 알릴 기회를 얻는 것이다. 회사 전체가 기대를 걸고 야심 만만하게 시작한 이 중요한 프로젝트는 케이시에게 맡겨지고, 셀레스테는 케이시에게 놀라운 제안을 내밀었다. 존재감 없는 브랜드의 회생을 도와줄 작가 중에서 셀레스테가 지목한 첫 번째 주인공, 벤 윈터를 설득해서 참여하겠다는 허락을 받아내면 <진짜 주부들>의 프로듀서와 개인적으로 만나는 자리를 마련해주겠다는 것이다! 케이시는 그 기회를 얻기 위해 능력을 총동원하는데, 벤 라이터라는 작가는 심지어 멋지고 잘생기기까지 한 외모로 케이시의 마음을 한눈에 사로잡아버렸다. 게다가 만나면 만날수록, 벤은 작가로서의 능력만 걸출한 것이 아니라 진짜 괜찮은 사람이었다.

일과 사랑, 한 번에 두 마리 토끼를 사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바로 눈 앞에서 있는데, 케이시는 광고 일을 시작한 후로는 처음으로 자신이 하는 일에 불편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한다. 예술을 철저히 돈으로 성패가 갈리는 일과 접목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일일까? 광고로 ‘판매’하는 상품에 예술을 포함시키는 것, 회사가 집이고 일은 평생 직업이라 확신했던 케이시는 중차대한 결정의 기로에 놓인다.

<저자 소개>

샬리 프랜슨(Sally Franson)은 미네소타 대학교에서 예술석사를 취득하고 현재 동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Witness, Room Magazine」, 「The Great River Review」 등에 글을 기고해 왔다.

Praise and publicity updates for
A LADY'S GUIDE TO SELLING OUT
SALLY FRANSON

"Bitingly funny . . . [Sally] Franson's snappy debut nimbly skewers the high-flying world of advertising and romance in the age of social media. . . . Comparisons will be made to *The Devil Wears Prada*, but Franson's irresistibly flawed heroine holds her own as she strives to find honesty, meaning, and even love in a demanding world, resulting in an addictive, escapist novel."—

Publishers Weekly

"A high-spirited heroine loses herself in a vortex of modern striving in this debut novel. . . . Come for the hilarious narration, stay for the whirlwind plot, luxuriate in the satirical gleam."—***Kirkus***

Reviews

"A fast-paced and quick-witted trip into the world of advertising today. With smart, funny characters and perfectly crafted dialogue, Franson cleverly explores the battle between giving in and staying true to oneself."—***Booklist***

"Truly beautifully observed, *A Lady's Guide to Selling Out* is a gorgeous treat. Sally Franson's voice is addictive: whip-smart, biting, and clever. I kept pausing to reread parts of it with a huge smile on my face."—**Jane Green, author of *Summer Secrets***

"*A Lady's Guide to Selling Out* perfectly captures the glamorous highs and hilarious lows of the cutthroat world of new advertising—the Wild West of our time. Casey Pendergast is an unforgettable heroine, a feminist Don Draper for our age, navigating the bizarre ways in which art and commerce intersect. Sally Franson's debut is exhilarating, terrifying, and totally addictive."—

Lucy Sykes, author of *Fitness Junkie*

"If Jane Austen's Emma and Dorothy Parker had a three-way with David Copperfield (not the magician), Casey Pendergast would be their wisecracking, heartbroken love child. In Sally Franson's smart, funny, and sharp-eyed novel, terrible mistakes are made and, mostly, rectified. A happy ending, a true heart, and a very good and clever time. Perfect."—**Amy Bloom, author of *Away***

"A wonderfully comic and smart novel about one woman's trip to our contemporary Vanity Fair, complete with Instagram, Twitter, and messaging of every sort . . . Both funny and sobering, this book is a remarkable debut from an amazingly prescient and talented young writer."—**Charles**

Baxter, author of *The Feast of Love*

추가 업데이트

제목 : THE ENSEMBLE

가제 : 앙상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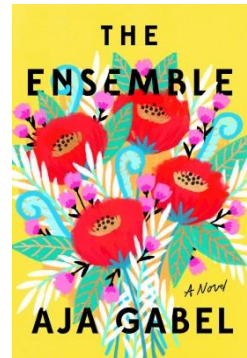
저자 : Aja Gabel

출판사: Riverhead

발행일: 2018년 5월 15일

분량 : 352 페이지

장르 : 영미소설일반



* 독일, 네덜란드 판권 계약

* “때로는 부딪히고, 때로는 하모니를 이루지만 늘 함께 공유한 과거로 연결되어 있는 네 명의 젊은 음악가들이 삶을 찾아가는 과정을 섬세하게 그린 강력한 데뷔 소설” -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Everything I Never Told You』의 작가 셀레스테 응

* “사랑과 인생, 음악에 관한 현명하고 힘 있는 소설. 읽으면서 끝나지 않기를 바랐다.” -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Seating Arrangements』의 작가 매기 쉽스태드

좋아하는 일, 누구보다 잘하고 싶은 일을 찾아 열정을 다하는 이야기는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하기 싫은 일도 해내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늘 감동과 신선한 자극을 준다. 현악 4중주단으로 한 팀이 된 네 명의 젊은이들의 사랑과 음악에 대한 끊임없는 열정을 생생하게 그린 이 소설 역시 순수한 야망이 주는 감동과 함께 음악이라는 소재가 선사하는 예술적 아름다움, 팀 플레이의 가치를 전한다. 첼리스트로 활동했던 작가가 쓴 이야기답게 음악에 대한 묘사와 연주자들과의 관계, 음악계의 현실이 현실적으로 그려진 특별한 소설이다.

졸업 연주회를 앞두고, 반 네스 현악 4중주단은 마침 다른 행사로 학교를 찾아온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 포도리오에게 몇 시간 동안 가르침을 받았다. 솔리스트로 전 세계를 누비며 연주회를 열고 있는 잘 나가는 음악가답게 그는 자신만만한 태도로 네 사람의 연주를 지켜봤다. 졸업 연주회는 그저 즐기는 행사가 아니라 교수님들이 엄격히 점수를 매기는 평가의 시간이자 신인 음악가들을 발굴하기 위해 에이전트나 음악계 관계자들도 날카로운 눈으로 지켜보는 중요한 자리이기도 하지만, 사실 반 네스 4중주단에게는 더 중요한 일이 기다리고 있었다. 불과 일주일 뒤 캐나다에서 열리는 ‘에스터하지 경연’이 이들의 주된 목표였다. 이 대회에서 우승을 한다면 힘겹게, 가까스로 이어온 음악 활동에 새로운 문이 열리는 것이나 다름없기에 팀의 리더인 자나도, 제2 바이올린을 맡고 있는 브릿도, 가장 어리지만 재능은 누구보다 뛰어난 비올리스트 헨리도, 그리고 최연장자인 첼리스트 대니엘도 오랫동안 우승을 위해 실력을 갈고 닦았다. 그러나 포도리오와의 짧은 만남은 이들 모두에게 예상치 못한 변화를 가져온다.

사실 포도리오 앞에서 연주를 하고 가르침을 받고자 한 건 전략적인 선택이었다. 자나는 그

가 올해 에스터하지 경연에서 심사위원을 맡았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연주회나 대회가 임박하면 다른 사람의 공연은 절대 가지 않는다는 자신만의 철칙을 깨고 자나가 졸업 연주회 이를 전에 열린 포도리오의 협연을 보러 간 것도 같은 목적 때문이었다. 졸업 연주회를 무사히 마치고 눈 감고도 찾아갈 수 있는 자신의 호텔로 가는 길을 굳이 직접 안내해달라는 포도리오의 노골적인 요구도 자나는 역시나 그 목적으로 받아들였다. 경연 우승, 오직 그것만이 어릴 때부터 가난한 형편에 꾸역꾸역 음악을 해온 지난 시간을 보상 받을 수 있는 절실한 기회였다.

얼마 전까지 연인 관계였던 브릿과 대니엘은 갑작스러운 대니엘의 이별 통보로 짧게 끝나고 브릿은 쉽게 이별의 아픔을 추스르지 못한다. 나이도 어리고 별로 열심히 연습하는 것 같지도 않은 헨리가 누가 봐도 타고난 음악적 재능을 갖고 있다는 사실, 대니엘이 브릿과의 관계는 물론 술한 여성들과의 복잡한 관계를 다 정리한 이유는 바로 그 사실이었다. 철저히 노력파인 자신이 나머지 팀원들, 특히 헨리의 기량에 맞추기 위해서는 수십 배 더 많이 연습해야 한다는 사실을 철저히 느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실을 인지하는 것과 인정하는 건 너무나 다른 일이었다. 헨리 역시 첫 과외가 끝난 뒤 포도리오가 팀원들 몰래 내민 명함 때문에 머릿속이 복잡하다. 4중주단으로 활동하는 대신 솔로로 나서보라고, 뉴욕으로 오면 얼마든지 길을 열어 주겠다는 포도리오의 적극적인 섭외에 헨리는 아무 말 없이 명함을 받아 쥐기만 했지만 그 날 이후 머릿속에는 온통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진로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 느꼈던 처음의 감정은 점점 흐려지고, 또 다른 가능성을 자신도 모르게 생각하기 시작했다.

네 명의 하모니가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선율, 기계적인 조화가 아닌 몸도 마음도 모두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생겨나는 진한 감동의 가치를 아는 네 사람은 음악가로서의 삶을 결정지을 중대한 경연과 기회를 앞두고 각자 갈등의 기로에 선다. 소설은 이들이 풋풋한 젊은이들이던 시절부터 중년이 되기까지 음악가로 성장해가는 과정을 조심스럽게 따라가며 가슴 아픈 이별과 결혼, 큰 성공과 실패를 겪으며 예술에 대한 사랑을 키우고 밀쳐내기도 하지만 결국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추억과 비밀, 기억이 밀거름이 된 협주의 소중함을 깨닫는 여정을 아름답게 그려낸다. 음악을 잘 모르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세상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음악을 잘 아는 사람에게는 소설이라는 매체로 새로운 음악적 감동을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될 만한 이야기다.

<저자 소개>

아자 가벨(Aja Gabel)은 첼리스트로 활동하다가 작가로 전향했다. 웨슬리언 대학교, 버지니아 대학교에서 공부하고 휴스턴 대학교에서 문예창작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Kenyon Review」에 실린 에세이 "The Sparrows in France"로 동 잡지로부터 '2015 미국 최고의 에세이'라는 찬사를 받았다. 「Atlantic Monthly」, 「Inprint」, Sewanee Writers' Conference, Literary Arts Oregon 등으로부터 다양한 상을 수상했다.

Praise for
THE ENSEMBLE
AJA GABEL

"Aja Gabel's powerful debut offers a sensitive portrait of four young musicians forging their paths through life: sometimes at odds with each other, sometimes in harmony, but always inextricably linked by their shared pasts."

—**Celeste Ng**, *New York Times* bestselling author of *Everything I Never Told You* and *Little Fires Everywhere*

"With uncommon clarity and empathy, Aja Gabel brings us inside the passionate, complex, and sometimes cutthroat intimacy that exists among the four members of a string quartet. A wise and powerful novel about love, life, and music. I didn't want it to end."

—**Maggie Shipstead**, *New York Times* bestselling author of *Seating Arrangements* and *Astonish Me*

"Sweeping, romantic, elegiac, *The Ensemble* gives you the feeling of being inside the music of a quartet, a look into the relationships under the music, the love and heartbreak, set against their ruthless commitment to both their art, and to each other. Aja Gabel is a phenomenon."

—**Alexander Chee**, author of *The Queen of the Night* and *How to Write an Autobiographical Novel*

"*The Ensemble* deserves a standing ovation. A gripping tale of four musician's journeys through discord and harmony, life and love. Aja Gabel is a brilliant young writer with the rare gift of an old soul."

—**Mat Johnson**, author of *Pym* and *Loving Day*

"I often admire novels that are platforms for their writers' own stories, upon which their own singular character, with its own singular history, is carefully incised. This, however, is a novel of a different, more expansive, and altogether more electrifying kind. Aja Gabel contains at least four complete human beings inside her, and I'm guessing countless others. She knows these people down to their cells, and she gives all of herself to them."

—**Kevin Brockmeier**

NON-FICTION

제목 : HEART TALK: A POETIC WISDOM FOR A BETTER LIFE

가제 : 마음의 대화: '밀레니얼 오프라 윈프리'가 들려주는 더 나은 삶을 위한 지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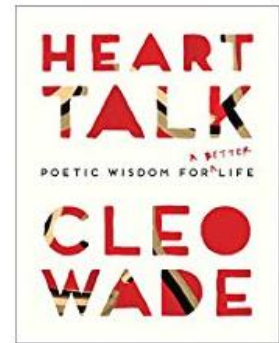
저자 : Cleo Wade

출판사: Atria

발행일: 2018년 3월 6일

분량 : 224 페이지.

장르 : 자기계발



* 독일, 호주 판권 계약

* 2017년 TED 출연, 조회수 100만 회 돌파:

(www.ted.com/talks/cleo_wade_want_to_change_the_world_start_by_being_brave_enough_to_care)

시인이자 아티스트, 인권운동가로 활동해온 클레오 웨이드가 직접 쓴 시와 글,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명언을 모아 사랑과 수용, 정의, 평화, 평등의 가치를 전하는 책으로 엮었다. 뉴올리언스 프랑스 지구에 설치한 7.6 미터 높이의 설치예술 ‘존중(Respect)’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공공장소에 대형 작품을 설치하며 자신의 메시지를 전해온 저자는 2017년 여름에는 그래피티 아티스트 브랜드 오덤스와 함께 뉴올리언스 바이워터 지역의 15 미터 높이 창고 건물 한 면 전체에 여성의 얼굴 그려 넣은 작품에 이어 뉴욕 헤스터 스트리트에는 누구나 들어가서 평화와 사랑의 메시지를 서로 나눌 수 있는 부스를 제작한 “괜찮나요(Are You OK)” 프로젝트로 또 다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최근에는 로스앤젤리스 비벌리 센터 정면에 설치된 15 미터 크기의 스크린에 “사랑을 보여주세요, 사랑을 퍼뜨리세요(Show Love Spread Love)”라는 공공 설치미술작품을 선보이는 한편, 인스타그램 계정과 그림, 조각 등 다채로운 예술 활동을 이어온 저자의 모든 작품에 뿌리이자 중심이 되는 것은 예술이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것, 모든 이들에게 다가갈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는 TED 강연에서도 강조한 것처럼 인종이나 성별, 성적 지향성과 상관없이 누구나 존중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저자의 굳건한 믿음에서 시작됐다. 「뉴욕」 매거진에서 ‘밀레니엄 시대의 오프라 윈프리’로 지칭할 만큼 특히 젊은이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저자는 자신을 일깨우고 지혜를 선사한 좋은 글귀와 그것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풀어낸 시 등 120편의 글과 작품으로 정리하여 이 책에서 소개한다.

연인과 가족, 친구, 직장 동료 등 살면서 겪을 법한 가슴 아픈 상황을 대부분 겪고 절망과 우울함에 빠졌었다고 이야기하는 저자는, 그 고통스러운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이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설명한다. 떠올리기 싫은 일들과 두 번 다시 겪고 싶지 않은 마음 아픈 일들에 관한 각자의 이야기는 새로운 자신을 만드는 벽돌이 되고, 그렇게 완

성된 새로운 나는 이전의 나보다 분명 더 나은 사람, 더 빛나는 사람이라고 저자는 단언한다. 그러려면 자신이 겪은 일, 이겨내려 애쓰는 일에 대해 아닌 척 하지 말고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어야 경험과 기억만이 선사할 수 있는 마법 같은 힘이 비로소 발휘된다. 무엇보다 자신을 사랑하고 지나간 일들 때문에 겁을 먹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등 어쩌면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이야기이고 한 번쯤은 들어본 메시지를 저자는 시와 진심이 가득 묻어나 새삼 공감하게 되는 글귀로 독자들에게 호소하듯 이야기한다. 저자 스스로도 밝혔듯이, 손에 닿는 곳 어디든 두었다가 아무 페이지나 펼쳐서 읽을 수 있는 감동적이고 따뜻한 이야기들이 가득한 책이다.

<목차>

중요한 일부터 먼저

숨바꼭질

자연스러울 뿐

전부 다

스스로를 아는 건 엄청난 일

그 때였어

사랑은 절대 죽지 않아

전쟁터만 있는 건 아니다

감사는 경제적이고 영적인 스트레스 해소법

(이하 생략)

<저자 소개>

클레오 웨이드(Cleo Wade)는 시와 설치미술, 스토리텔링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평화와 사랑의 가치를 알리는데 힘써 왔다. 「마리끌레르」 선정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50인’, 패스트 컴퍼니(Fast Company) 선정 ‘산업계 가장 창의력 있는 인물 100인’에 포함됐다. 「보그」, 「엘르」, 「W」, 「글래머」, 「뉴욕타임스」 등에도 소개됐다.

제목: HOW TO GET ON WITH ANYONE

가제: 끌어 모으는 사람: 어떤 사람과도 함께 살고 함께 일하는 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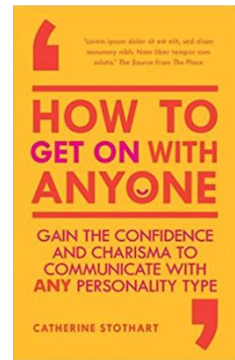
저자: Catherine Stothart

출판사: FT Press

발행일: 2018년 6월 28일

분량: 280 페이지

장르: 처세



*** 어떤 성격을 가진 사람과도 무난하게 지내며 함께 일할 수 있는 기술을 안내하는 대인관계 지침서**

“나랑 정말 안 맞아.” “꼭 사사건건 부딪힌단 말이야.” 직장에서는 물론이고 친구, 가족 중에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사람이 있다. 좋은 마음으로 좀 잘 지내보려고 애를 써도 자꾸 갈등이 생기고, 다른 사람들과는 무난하게 넘어가는 상황이나 대화도 이상하게 꼬여서 짜증이 나고야 마는 사람이 있을 때, 하지만 보기 싫다고 해서 안 보고 살 수도 없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업무 내용보다 사람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가 더 많다는 사실에 대다수가 공감하는데, 벗어날 방법은 정말 없을까? 조직 행동을 공부하고 대형 기업들에서 벌어진 대인관계 갈등의 해결을 돕는 컨설턴트로 활동해온 저자는 어떤 사람과도 원만히 지낼 수 있는 방법을 이 책에서 알려준다. 까다롭고, 걸핏하면 화를 내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뚱해서 불편한 분위기를 조성하거나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남을 평가하고 투덜대고 무시하고 존중하지 않는 사람과 상당한 시간을 보내야 하는 사람들에게 절실한 기술이자, 큰 문제는 없지만 좀 더 의미 있고 돈독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도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대인 관계 기술을 소개한 책이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 혼자서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은 오래 전부터 입증된 사실이다. 그럼에도 함께 어울려 지내야 하는 사람들과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거나 이해관계가 부딪혀 원치 않은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저자는 우리가 ‘원래 저런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 즉 개개인이 여러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내는 특징을 토대로 크게 성격 타입을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나와 상대방의 타입을 파악해서 갈등을 만들지 않는 방향으로 현명하게 이끌어갈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성격 타입부터 진단하고, 자주 부딪히는 사람의 성격을 파악하는 분석 과정이 필요하다. 이 책은 총 3부에 걸쳐 그 과정을 상세히 설명한다. 7장으로 구성된 1부에서는 먼저 성격 타입을 유형별로 구분하는 것이 왜 필요하고 중요한지 알아본다. 그리고 ‘스타일’로 명명한 이 네 가지 성격의 강점과 약점을 살펴 보면서 나와 상대방이 어느 지점에서 긍정적, 부정적 자극을 받는지 확인한다. 이는 지속적인 스트레스와 갈등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바탕이 된다. 이어 8장부터 12장까지 이어지는 책 2부에서는 다른 사람의 성격 유형을

인지하는 방법과 각 스타일별로 갈등은 최대한 피하고 상승 효과를 끌어낼 수 있는 길은 무엇인지 알아본다. 그리고 13장부터 17장까지로 구성된 마지막 3부에서는 다양한 상황에서 성격 유형별로 어떤 특징을 보이며 같은 일도 얼마나 다르게 인식하고 처리하는지 실제 생활 예시를 통해 더 깊이 알아본다. 우리가 처음 만난 사람에게 친근감을 느끼고 신뢰하게 되는 과정, 대충 타협해서 넘어가는 대신 서로의 성격 유형을 올바르게 인식하여 고무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두 사람이 동시에 노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방법, 잃어버린 자신감을 되찾고 압박감에서 벗어나는 방법 등을 배울 수 있다.

불쾌하고 불편한 대인 관계와 무턱대고 씨름하고 ‘다 그러고 산다’는 생각에 억지로 얹어버리는 대신, 어디서부터 왜 어긋나는지 원인을 생각해보고 현실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유익한 지침서다.

<목차>

머리말: 분위기 조성

1부. 여러분은 어떤 스타일인가?

1장. 뇌와 당신

2장. 스타일의 정의, 여러분의 스타일은?

3장. 자기 인식 - 네 가지 스타일

4장. 네비게이터

5장. 끌어 모으는 사람

6장. 에너지이저

7장. 만들어 내는 사람

2부. 상대방의 스타일 파악하는 법

8장. 다른 사람을 잘 알아보려면

9장. 네비게이터와 함께 살고 함께 일하는 법

10장. 끌어 모으는 사람과 함께 살고 함께 일하는 법

(이하 생략, 총 3부 17장, 부록 표로 구성)

<저자 소개>

캐서린 스토타트(Catherine Stothart)는 런던 대학교에서 조직 행동과 코칭, 정신측정에 관한 석사과정을 마치고 에어버스, 아우디 UK 등 대형 업체를 대상으로 컨설턴트, 경영 코치 등으로 활동해 왔다. 포드 자동차, 머큐리 커뮤니케이션에서 근무한 후 2004년부터 ‘에센우드 컨설팅(Essenwood Consulting)’을 운영하고 있다.

제목 : THE ART OF VANISHING

가제 : 떠날 때 얻는 것들: 자유를 반납한 결혼의 문제 탐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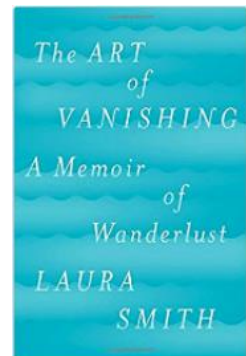
저자 : Laura Smith

출판사: Viking

발행일: 2018년 2월 6일

분량 : 272 페이지

장르 : 여성/페미니즘



- * “흥미롭고 독창적인 자서전이자 결혼 생활에 대한 회고록. ‘모험과 안정이 결합된 삶을 만들 수도 있을까?’와 같은 몇 가지 불편한 질문들을 탐구한 책이다.” - 『Spinster: Making a Life of One’s Own』의 저자 케이트 볼릭
- * “삶의 수수께끼를 반드시 풀어주리라는 확신으로 누군가의 인생을 뒤쫓은 이 특이한 책에서 친밀함과 광활함, 그리고 긴장감과 평온함을 모두 느낄 수 있다.” - 『The End of Men』의 저자 한나 로신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많이 남은 사람도 나이든 사람들처럼 지난 삶을 후회한다. 나이를 불문하고, 주변 사람들의 생각이나 객관적인 판단과 상관없이 ‘왜 나는 지금 이렇게 살고 있나’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거의 없을 것이다. 텔레비전이나 영화, 혹은 친구나 이웃의 이야기에서 자신과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을 보면 알게 모르게 비교하고, ‘내가 저런 삶을 살았다면 어땠을까’ 상상하게 된다.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들 하지만, 대부분은 이미 가진 것을 쉽게 포기하지 못한다. 무엇이 나타날지 확실하지 않은 길로 무작정 걸어가는 것을 많은 사람들은 무모하다고 여긴다. 저자는 어릴 때부터 꿈꾸던 스펙터클하고 변화무쌍한 모험 대신 그저 그렇게 남들처럼 안주하면서도 채워지지 않은 꿈을 늘 떠올렸고, 우연히 자신과 여러모로 닮았지만 다른 결단을 내린 한 여성의 이야기를 접한다. 1939년부터 행적이 묘연해진 작가, 바바라 폴렛이 바로 그 주인공이었다. 결혼 6년 차에 남편도 집도 그 외 모든 것을 남겨두고 30달러와 노트 하나만 챙겨 집을 나간 바바라 폴렛은 이후 한 번도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저자는 꼬마 소녀 시절부터 남다른 영리함으로 주목 받고 모험을 즐기던 바바라의 놀라운 선택이 어디에서 비롯됐는지 찾아보기로 결심한다. 이 책은 수수께끼로 남은 오래 전 한 여성의 실종 사건을 추적한 기록이자, 바바라와 비슷한 나이인 저자가 그 과정에서 깨달은, 스스로의 삶과 도전, 모험의 가치와 중요성을 밝힌 자서전이다.

다섯 살 때부터 단편을 쓰기 시작했고 열두 살에 발표한 소설 <창문 없는 집>이 베스트셀러 대열에 오르며 영재라고 불린 바바라 폴렛은 그저 가만히 앉아 책을 읽고 글을 쓰는 소녀가 아니었다. 열세 살에는 엄마아빠 없이 험한 뱃길로 남중국해를 여행하고 그 때의 경험을 글로 남기기도 했다. 시인으로서도 특별한 재능을 보인 바바라는 바이올린 연주 실력이나 식물학,

나비 등 자연에 대한 지식 수준도 상당했다. 애팔레치아 산맥 등산에 처음 도전한 여성들 중 한 명이기도 했다.

그러다 스물다섯 살이던 1939년 12월의 어느 날, 바바라는 결혼 생활과 그간의 삶을 뒤에 남겨둔 채 집을 나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어릴 때부터 전통적인 결혼 생활과 암묵적으로 고정된 남녀의 역할, ‘잘 사는 것’의 보편적인 기준과 내일도 모레도 오늘과 별로 다를 것 없는 반복되는 일상에 큰 거부감을 느꼈던 저자는 바바라의 이야기에서 현실에 가만히 체념하지 않는 비슷한 모습을 발견한다. 무엇이 바바라의 과감한 가출을 촉발시켰는지 찾기 시작한 저자는 남들의 기준에 따라 스스로 그어놓은 인생의 한계와 자유를 반납한 결혼의 문제를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보기로 하고, 남편과 함께 곳곳을 여행하며 조금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을 탐구하기 시작한다. 그 과정에서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는 도전과 이례적인 행동들까지 남김 없이 솔직하게 털어 놓으면서, 저자는 내면에서 결코 사라진 적 없는 자유에 대한 갈망을 다양한 시선에서 분석한다. 이미 선택을 내린 여성과 여전히 나아갈 방향을 탐색 중인 또 다른 여성의 이야기에는 우리가 기계적으로 내리는 아주 중요한 인생의 선택을 다시 돌아보고 생각하게 하는 힘이 담겨 있다.

<목차>

- 별도 소제목 없이 24장으로 구성

<저자 소개>

로라 스미스(Laura Smith)는 「뉴욕타임스」 「가디언」 「마더 존스」 「슬레이트」에 기사와 글을 기고해 왔다.

제목 : SIT DOWN BE QUIET

가제 : 요가하는 남자들: 남자다움을 재정의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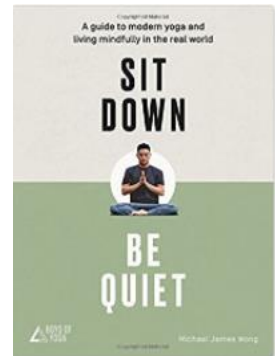
저자 : Nathan Raab

출판사: Michael James Wong and Boys of Yoga

발행일: 2018년 3월 8일

분량 : 224 페이지

장르 : 건강



- * “저자는 전 세계 모든 남자들이 요가 매트에 올라설 수 있도록 이끄는 진심 어린 노력을 시작한 사람이다. 남자로서 스파덱스를 입고 당당해지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요가를 하면서 훨씬 편해졌다.” – Wanderlust UK, 앨런 스틸
- * “소년이든 남성이든 모두 요가에 뛰어들도록 하는 초대장이다.” – 요가 강사, ‘SmartFlow Yoga’ 창립자 애니 카펜터

요가는 여성들이 즐기는 취미활동이자 운동이라는 세상의 인식을 확 뒤집으려 나선 젊은 청년이 남성을 위한 요가 가이드를 선보인다. 남자라면 무거운 역기를 번쩍 들어 올리거나 땀을 뻘뻘 흘리며 거칠게 이리저리 움직이는 운동이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면 쫄쫄이 바지와 소매 없는 옷을 입고 매트 위에서 균형을 잡는 건 우스꽝스럽게 여기고 ‘계집애냐’ 타박을 주기도 하지만, ‘보이즈 오브 요가’라는 단체를 설립하고 전 세계적 남성 요가인들의 결집을 도모해온 저자는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 이 책을 통해 설명한다. 애초에 요가는 여성이 아닌 남성을 위해 탄생했고, 격하게 움직이지 않아도 매트에서 조용히 내면을 단련시키는 요가만큼 남자를 ‘남자답게’ 만들어주는 운동은 없다는 것을 실제로 깨달은 여러 남성들의 이야기와 쓸데 없는 고정관념을 깨고 요가를 시작하는 방법을 소개한 특별한 안내서다.

중국인 이민자 부모님의 둘째 아들로 뉴질랜드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 미국에 건너온 저자는 어디에서도 소속감을 느끼지 못한 채로 유년 시절을 보냈다고 이야기한다. 뉴질랜드 사람도 아니고, 미국에서 살게 됐지만 미국인도 아니고, 이름에 중국인임을 나타내는 성도 포함되어 있지만 중국에 대해서는 부모님을 통해 접하는 것 외에 아는 것도 없는 혼란스러움 속에서 정체성을 찾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다. 다행히 든든한 가족 덕분에 크게 벗어나지 않았지만 늘 불안정했던 마음은 20대 초반, 친구들에게 이끌려 억지로 따라간 요가 수업에서 마침내 길을 찾았다. “남자가 요가를?” 이라는 부정적이고 아니꼬운 남성들의 시선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도 저자 자신도 그 당시에는 똑같은 생각을 했기 때문이고, 그것이 정말 근거 없는 오해임을 요가로 큰 변화를 겪으면서 진심으로 깨달았다고 저자는 이야기한다.

남자는 강해야 한다, 절대 울면 안 된다, 덤벼든 일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겨야 한다, 등등 양성평등을 부르짖는 목소리가 나날이 커지는 와중에도 세상이 알게 모르게 남성들에게 강요하는

성 역할은 뿌리 깊이 남아 있다. 그런 왜곡된 인식을 바로 잡고 세상의 시선과 상관없이 걸이 아닌 내면의 에너지를 찾아 강화시키는 것, 이것이 발바닥을 마주 대거나 머리 위로 다리를 들어 올릴 수 있느냐 없느냐 보다 훨씬 더 중요한 요가의 핵심이라고 저자는 설명한다. 어렵고 이해하기 힘든 요가 기술보다는 요가로 얻을 수 있는 커다란 성취와 좀 더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남성 요가인의 입장에서 재정의한 사실들을 폭넓게 제시한 종합적인 이야기가 담겨 있다. 성별이나 나이, 인종, 신체 요건과 상관 없이 요가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최고의 운동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건강서다.

<목차>

서문 / 보이스 오브 요가 소개

머리말

실전 - 요가는 왜 필요할까?

호흡하라 - 호흡으로 찾는 평온함

어디서부터 어떻게? - 기초 지식, 시작하는 법

안에서 밖으로 - 걸이 아닌 속의 운동

자존심은 버려라 - 친절함은 적을 가리지 않는다

감정과 싸우지 마라 - ‘남자다움’의 재정의

자리에 앉아서, 조용하게 - 소리를 낮추자

행동하기 vs. 반응하기 - 행동이란 무엇일까?

오른쪽과 왼쪽 -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다

우선순위 - 분명하게 정할 것

미래가 아닌 지금 - 지금이 아니면 언제?

<저자 소개>

마이클 제임스 웡(Michael James Wong)은 요가 단체 ‘보이즈 오브 요가(Boys of Yoga)’ 창립자로, 요가 강사로 활동해 왔다. 영국, 유럽, 아시아 등 여러 나라에서 건강에 관한 강연도 이어 왔다.

제목 : BALLS UP: HOW TO SELL MORE OF ANYTHING

가제 : 공 여러 개를 동시에 저글링 하라: 성공을 위한 간단한 비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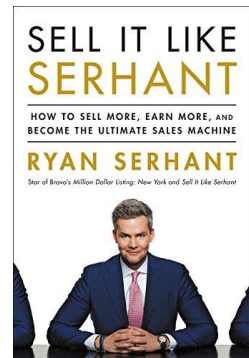
저자 : Ryan Serhant

출판사: Hachette Books

발행일: 2018년 9월 18일

분량 : 240 페이지

장르 : 경제/경영



* 출간 전임에도 현재 아마존 Sales & Selling 신간 부문 1위

* 10만 달러 단위 계약으로 복미 판권 계약

* 『원씽』과 같은 주제를 다루면서도 빈대의 해법을 제시하는, 2018년 하반기 기대작

게리 켈러와 제이 파파산의 『원씽』은 월스트리트 저널, 뉴욕타임즈, USA 투데이 베스트 셀러 1위에 오른 베스트 셀러다. 이 책은 진정으로 집중할 한 가지(one thing)를 찾아 어수선했음을 헤쳐나가며 성공으로 돌진하라고 말한다. 그 책은 전 세계의 수많은 독자들에게 성공을 위한 한 층 더 생산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며 큰 인기를 끌었다. 이 책도 『원씽』과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모든 것이 지나치게 많은 복잡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 말이다. 미국 전역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부동산 세일즈 팀을 이끌고 있는 저자는, 이 책에서 신선하게도 정 반대의 해법을 제시한다.

'카오스는 판매를 낳는다' - 여러 건을 동시에 저글링 해야 꾸준히, 더 많이 팔 수 있다!

지금은 인기 프로그램 <백만 달러 명단(Million Dollar Listing)>에 출연 중이고, <서란트 처럼 팔아라(Sell It Like Serhant)>라는 자신만의 리얼리티 쇼 방영을 앞두고 있는 성공한 세일즈맨이지만, 원래 그는 세일즈와는 아주 거리가 먼 사람이었다. 학창 시절에는 괴롭힘 당할까 두려워 복도로 선뜻 나가지 못할 만큼 유약했으며, 있는 그대로의 자신보다 분장을 하고 연극 무대에 올라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 편한 학생이었다. 그래서 졸업 후 바로 뉴욕으로 가서 낯은 아파트에 살면서 배우 오디션을 보러 다녔다. 헬스장에서 운동하기 위해 전단지를 뿌렸고, 수업이 없어 아르바이트를 하며 버텨야 했다. 그는 식당에서 일하느라 오디션 시간을 놓치는 것이 싫어, 스케줄을 조정할 수 있는 부동산 중개인 자격증을 취득했다.

골프공부터 냉장고, 아이디어까지, '판매'라는 것을 하고 있는 모두에게 필요한 꿀팁 대방출

우연히 시작한 일이지만 그는 이 일에서 진정한 성취를 이루었다. 그토록 소심했던 사람이

판매의 달인이 될 수 있었던 비법은 무엇일까? 그는 한 번에 하나씩이 아니라, 여러 건을 동시에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한다. 한 번에 세일즈 한 건에 집중한 후, 그 건을 끝내놓고 다음 건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혼란스럽더라도 동시다발적으로 일해야 한다. 멀티태스킹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의견이 다수의 호응을 얻고 있지만, 세일즈 만큼은 그렇지 않다. 예를 들어 공 하나를 하늘 높이 힘껏 던지면, 그 공이 올라갔다가 떨어지기까지의 시간 동안 여러 공을 다룰 시간이 생긴다는 것이다.

공 하나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머니 속에 공 여러 개를 넣고 동시다발적으로 일해야 하는 이유는, '세일즈'라는 일의 특성에 있다. 우연히 100만 달러짜리 아파트나 무지 비싼 그랜드 피아노나 10만 달러짜리 카페트를 팔 수도 있겠지만, 세일즈맨의 성공은 한 두 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바로 많은 '판매 건수'에 있다. 저자는 꾸준히 많은 판매 건수를 올리기 위해서는 되도록 많은 공을 상공으로 올려 동시에 처리해야 하고, 또 그럴 수 있도록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을 돕는다.

자신의 처절한 실패의 빛나는 성공의 경험들을 바탕으로, '세일즈맨을 자신도 모르게 자폭하게 하는 9가지 행동' 및 '서란트 처럼 팔기 처방전'을 제시한다. 자신의 분야에서 끊임없이 많이 파는 법을 배우고 싶은 모든 이들을 위한 유익한 책이다.

<목차>

1. 세일즈맨의 탄생
2. '사겠다'라는 답변을 항상 받는 곳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3. 만나서 반가워요, 수트가 멋지시네요: 관계맺기의 힘 활용하기
4. 사실은 정보를 전달하지만 이야기는 판매를 한다
5. 세일즈는 패턴이다
6. 공 여러 개를 동시에 저글링하라: 성공을 위한 간단한 비밀
7. 날 것 위에 옷 그려 넣기: 더 많이 팔기 위해서는 창조성을 활용하라
8. 못 팔 때도 있으며, 인생이 망하지 않는다 - 다음을 위한 일 보 후퇴
9. 비유의 총알을 채운 총: 넌 잘하고 있어, 이제 더 많이 팔아봐

<저자 소개>

라이언 서란트(Ryan Serhant)는 잡지 「더 리얼 딜(The Real Deal)」 선정 가장 성공한 뉴욕의 부동산 중개인 중 한 명이다. 7번의 시즌 동안 두 번 에미상 후보에 오른 미국 NBC 유니버설 소속 '브라보(Bravo)' 채널의 <백만 달러 명단(Million Dollar Listing)>에 출연 중이다. 브라보 채널에서 <서란트 처럼 팔아라(Sell It Like Serhant)>라는 리얼리티 쇼 방영을 앞두고 있으며, CNN, CNBC, 더 투데이 쇼(The Today Show) 등 여러 방송에 출연하고, 뉴욕타임즈, 월스트리트 저널, 포브스 등에서 그의 이름이 인용된 것을 자주 볼 수 있다.

제목: BATHE

가제: 하루의 끝에서 따뜻하게 목욕

(부제: 심플하고 행복한 목욕의 모든 것)

저자: Suzanne Duckett

출판사: 미정 (현재 영국 출판사 후보 5곳 경쟁 중)

발행일: 미정

분량: 미정, 작은 판형의 하드커버

장르: 라이프스타일



*마이크 비킹의 <취계 라이프>와 롤라 오케르스트렘의 <라곰> 독자층을 겨냥한 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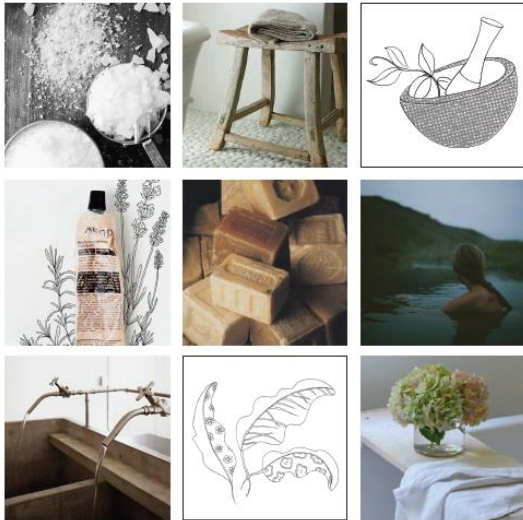
따뜻한 욕조에 몸을 푹 담그고 두 눈을 감는 것만큼 편안한 것이 없다. 목욕은 행복할 수 있는 가장 간편한 방법 중 하나다. 간편하다는 특성으로 인해 심플 라이프를 추구하는 오늘날, 목욕은 단순히 몸을 씻는 행위를 넘어 하나의 문화로 각광을 받고 있다. 스파 시설을 방문하거나 집에서 향이 좋은 목욕 제품을 소비하며 만족을 느끼는 사람들도 지난 수년 간 많이 증가하였다.

지난 한 해 동안 새로운 북유럽 라이프스타일이 한국 독자들에게 많이 소개되었다. 개괄적인 내용의 책이 독자들에게 큰 인기를 끈 만큼,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개별적인 제를 다룬 책들이 선보일 차례가 아닐까. 한국인들에게는 목욕 문화가 아주 친숙하다. 찜질방이라는 우리 고유의 목욕 문화도 있으니 말이다. 이 책은 이 친숙함을, 현재 각광받는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새롭고 신선하게 소개하는 책이다.

이 책은 한마디로 ‘목욕의 예술에 대한 개요’다. 순수함(Purity), 의식으로서의 목욕(Ritual), 원기회복(Rejuvenation), 명료함(Clarity), 차분함(Calm) – 이 다섯 장으로 나뉘어지며, 각 장마다 세계 곳곳의 다양한 목욕에 대한 짙막한 글과 사진이 수록되어 있어 마치 해외로 스파 여행을 간 것 같은, 이국적이면서도 편안한 감상을 느낄 수 있다. 중간중간 아름다운 일러스트와 유명인들의 목욕에 대한 명언들이 작은 판형의 책 한 면을 가득 채운다.

나아가, 실용적인 조언도 잊지 않는다. 목욕을 하며 해볼 수 있는 마음챙김이나 좋은 생각 훈련들이 조화롭게 수록되어 있다. 목욕이 구체적으로 왜 건강에 좋은지, 목욕을 하며 책을 적시지 않고 읽을 수 있는 팁까지 수록되어 있다. 목욕으로 아름다움을 유지했다는 클레오파트라나, 하루 두 번 목욕을 하며 전시상황의 스트레스를 해소했다는 윈스턴 처칠의 사례뿐 아니라, 유명한 사상가들이 욕조에서 최고의 생각을 해냈다는 이야기 등을 통해 소소한 역사까지 전달한다.

작은 하드커버 판형으로 나올 예정이며, 내부의 모든 사진과 일러스트는 흑백으로 인쇄해도 아름답도록 꾸밀 예정이다. 영국에서만 22만부가 팔린 마이크 비킹의 <취계 라이프>처럼 눈으로 보기에든 행복한 책이 될 것이다. 취계나 컬러링 북으로 대변되는 ‘웰빙과 셀프케어’의 흐름을 주도하는 거대한 독자층을 겨냥한 책이며, 행복의 실질적인 원천을 찾고 마음의 평화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책이 될 것이다.



BATHE
verb \ˈbæθ\
: to take a bath
: to become immersed
or absorbed

There is simply nothing like soaking a hot bath to unwind body and mind at the end of a long, hard day; there are few pleasures to rival its innate idleness and exquisite stillness. The bath is the ultimate equaliser and the most accessible and universal form of well-being for both men and women, one which has the power to transform how we look and feel.

Being immersed in water liberates the body and has a host of scientific benefits; it has been shown that not only is it a great way to unwind but it can stimulate the immune system, improve sleep, help skin conditions, boost circulation and heart health, benefit muscles and joints and balance hormones. Bathing is also a shortcut to finding peace and calm as a way to de-stress and be mindful, allowing an escape from the distractions of daily life. It also allows for a daily digital detox and a natural moment, free from the ties of technology.



'WATER
QUIETS ALL
THE NOISE,
ALL THE
DISTRACTIONS,
AND
CONNECTS
YOU TO
YOUR OWN
THOUGHTS'
-WALLACE J
NICHOLS



<저자소개>

Suzanne Duckett은 스파와 웰니스(wellness)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전문가입니다. Tatler의 스파 가이드 에디터이며, Psychologies에 웰니스 컬럼을 쓰고 있고, '현대의 질병에 대한 현실적인 처방'을 알려주는 매체인 The Antidote을 설립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Georgina Rodgers

신뢰받는 대필작가로, 함께 작업한 책들 중 무려 14권이 선데이타임스 베스트셀러에 올랐습니다.

추가 업데이트

제목 : THE NATURE OF SPACE AND TIME

가제 : 시간과 공간에 관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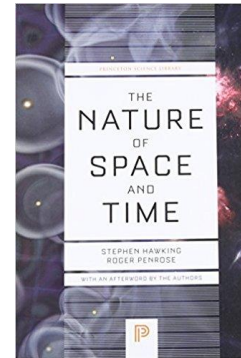
저자 : Stephen Hawking, Roger Penrose

출판사: Princeton University Press

발행일: 2000년 10월 01일

분량 : 142 페이지

장르 : 과학



*** 우주로 돌아간 스티븐 호킹의 연구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짧고 유익한 책**

스티븐 호킹과 로저 펜로즈라는 두 석학이 94년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토론한 내용을 담은 책이다. 우주의 본질에 대한 세계적 석학 사이의 논쟁을 통해 일반 상대성이론이나 시간과 공간에 대한 과학적 이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책이다.

<목차>

1. 고전 이론
2. 시공간 특이점의 구조
3. 양자 블랙홀
4. 양자론과 시공간
5. 양자 우주론
6. 시 공간을 트위스터로 취급하기
7. 토론

<저자 소개>

스티븐 호킹(Stephen W. Hawking)은 영국의 물리학자로 블랙홀에 관한 이론을 정립하였다. 60년대 초부터 치료 불가능한 근위 축성 측삭경화증을 앓기 시작하여 점점 불구가 되어 갔으나, '특이점 정리' "블랙홀 증발" "양자우주론" 등의 혁명적 이론을 현대물리학에 제시하였고, 계속 미시의 세계를 지배하는 양자역학과 거시의 세계를 지배하는 상대성 이론을 하나로 통일하는 통합이론인 "양자중력 이론" 연구에 몰두하였다. 1974년에 왕립학회의 최연소 회원이 되었고, 1980년에 뉴턴, 디랙에 이어서 케임브리지 대학 제3대 루카시언 석좌교수가 되었다. 2018년 3월 14일 세상을 떠났다.

로저 펜로즈(Roger Penrose)는 영국의 수학자, 상대론 물리학자로 1969년에 스티븐 호킹과 함께 블랙홀 안의 모든 물질은 특이점을 향해서 붕괴함을 증명하였다.

추가 업데이트

제목 : MANAGING TO MAKE A DIFFERENCE

가제 : 차이를 만드는 리더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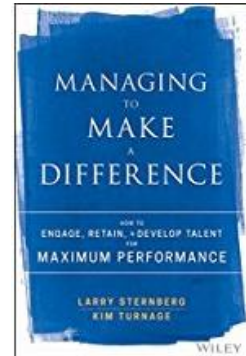
저자 : Larry Sternberg and Kim Turnage

출판사: Wiley

발행일: 2017년 5월 1일

분량 : 320 페이지

장르 : 경제/경영



- * “팀원과 관리자, 선임 관리자 모두에게 영감을 주고 중심을 다시 잡고 두려움 없이 리더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 – 베스트셀러 『Fearless Leaders』의 저자 캐시 그린버그
- * “구성원의 업무 참여시키고 능력을 인정하는 것의 중요성을 상기시키고 그것을 이끄는 툴을 제공하여 모든 리더가 최상의 성과를 얻도록 하는 책이다” – 하먼 매니지먼트(Harman Management Corporation) 부대표, 제레미 디믹

위에서 시키는 일도 겨우겨우 해내던 시절을 지나 다른 사람을 관리하는 자리에 오르는 건 커리어 개발의 측면에서 중요한 기점이자 기뻐할 만한 일이다.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일과 책임이 늘어나고, 회사 내에서의 입지도 탄탄해지고, 영향력도 커진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떤 조직이든 중간 관리자들은 승진의 기쁨을 제대로 누리기도 전에 위아래 양쪽에서 혹은 그 이상에서 몰려오는 압박과 스트레스로 몸살을 앓는다. 리더가 되었지만 누군가를 ‘리드’하는 일보다 온갖 자질구레한 일들을 처리해야 하고 그 와중에 팀 구성원들과 원만한 관계를 구축해야 하지만 리더십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이 제공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결국 재능과 능력을 두루 갖춘 관리자도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반복된다. 왜 출중한 능력을 인정 받아 승진한 사람들이 관리자의 자리에 오르면 한 사람의 직원으로서도, 리더로서도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만 내는 일이 빈번할까? 경영 컨설턴트로 최고 경영자, 상급 관리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해 온 두 저자는 업종과 상관없이 가장 고된 역할을 짊어진 중간 관리자들이 팀을 원만히 리드하고 스스로의 역량도 키우는 실용적인 기술과 팁을 이 책에서 소개한다.

‘좋은 관리자’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동료들이 진심으로 잘 이끌어준 사람으로 떠올리는 관리자들은 자신에게 있는지도 몰랐던 재능이나 잠재력을 알아보고 그것을 끄집어낼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 열정을 갖고 의욕적으로 일하도록 이끌어준 사람, 자신이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게끔 길을 열어준 사람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들이 사업적으로 얼마나 대단한 성과를 냈고 무슨 상이나 보너스를 받았는지는 잘 언급되지 않는다. 대신 신뢰, 멘토, 코치, 영감, 경청, 공감, 친구와 같은 단어가 언급된다. 자신에게 주어진 업무를 충실히 해 나가면서도 팀원들이 각자의 몫을 원만히 해내도록 이끌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계획과 적절한 툴이 필요하다.

두 저자는 협력과 결합이라는 경영 철학을 바탕으로 하고 리더십에 관한 검증된 연구결과들을 토대로 구성원의 업무 참여를 독려하고, 각자가 가진 재능을 십분 발휘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상세히 설명한다. 업무 현장에서 벌어진 다양한 사례들과 오늘날 대부분의 회사들이 직면하는 경영상의 해결과제를 폭넓게 다루면서, 구성원들이 시큰둥하게 그저 ‘돈 벌려고’ 일하는 대신 적극적으로 일에 참여하도록 리드함으로써 자연스레 큰 성과를 내도록 중간관리자가 해야 하는 역할, 할 수 있는 일을 구체적으로 알려준다.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하고 단순한 조언과 팁, 근거 없는 팀 내 구설이나 소문을 차단하고 업무 효율을 떨어뜨리는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는 전략, 실수하고 흔들리더라도 공통 목표를 향해 다시 모두가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지휘하는 방법 등 관리자의 실무에 꼭 필요한 정보가 가득하다.

<목차>

머리말

- 1부.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라 (1-12장)
- 2부. 사람들의 성장을 가속화시키는 법 (13-19장)
- 3부. 참여와 의욕을 최대한 끌어올려라 (20-29)
- 4부. 범상치 않은 팀으로 만들어라 (30-43장)
- 5부. 조직 문화의 틀을 잡아라 (44-61장)
- 6부. 변화를 수용하라 (62-68장)
- 7부. 자기 자신의 성장을 위해 투자하라 (69-79장)

<저자 소개>

래리 스텐버그(Larry Sternberg)는 경영 컨설팅 업체 ‘Talent Plus’의 이사로 재직 중이다. 수 천 명의 회사 경영진,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리더십 훈련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진행해 왔다.

킴 턴에이지(Kim Turnage)는 ‘Talent Plus’의 선임 컨설턴트로 개인 역량 개발 방법과 재능을 확대시키는 방법을 연구하고 지도해 왔다.